

1748년 불복장 저고리 소고

김 선 경 · 조 효 숙*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The Jeogori Included in The Buddhist Statue in 1748

Sun-Kyung Kim · Hyo-Sook Cho*
Dept. of Clothing, Kyungwon University

(2003. 8. 23.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jeogori included in the buddist statue in 1748. The jeogori was similar in shape to excavated costume of Andong Kwon, Papyung Yoon, and Chungyeongunju in 18th century. This jeogori was useful to estimate the interesting process of shape change of jeogori in 18th century.

Four different silk fabrics were used in the jeogori. Outer fabrics were satin weave with floral, lattice strip, dragon, and cloud patterns. The ground area was 5-harness warp faced satin and the patterned area was 5-harness filling faced satin. An inner fabric was simple plain weave. Warp and filling yarns of all fabrics in this jeogori had no twist.

Key Words: jeogori(저고리), buddist statue(불복장), 18th century(18세기), silk fabric(견직물), satin weave(주자직)

I. 서론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 2리에 위치하고 있는 백담사에는 극락보전 안에 主佛로 모셔져 있는 木造阿彌陀佛座像이 있다. 이는 서방 극락세계에 살면서 중생을 위해 자비를 베푸는 아미타불을 형상화한 것으로 조선 영조 24년(1748)에 만들어졌다. 목불상 안에는 불상의 조성연대를 알려주는 發願文과 많은 복장물이 있으며 이들

은 1993년 11월 5일에 보물 제 1182호로 지정되었다.

복장물 중에는 당시의 황색회장 저고리 한 점이 포함되어 있었다. 동시대의 저고리는 상당수 남아 있지만 대부분 분묘에서 출토되어서 원래의 색상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으나 백담사 저고리는 불상 내에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형태와 색상이 완벽하게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다른 어떤 출토 유물자료보다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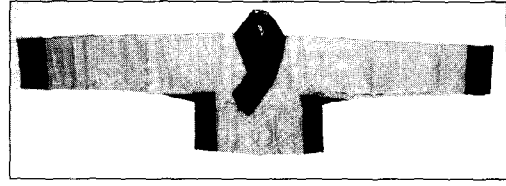
나, 발원문에 腹藏한 연도가 기록되어 있어 정확한 시대파악에도 도움이 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첫째, 저고리의 구성형태 및 봉제기법을 조사하고, 둘째, 사용된 직물의 조직과 밀도, 두께, 실의 굵기 등의 제직특성을 분석하며, 셋째, 직물의 색상을 측정하고 문양의 조형적 특성을 관찰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18세기 중기 저고리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당시의 저고리 고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여 영화의상 및 현대한복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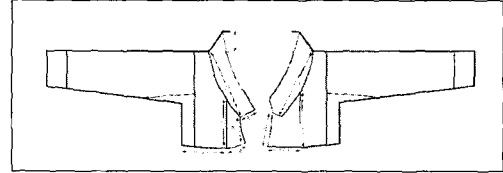
II. 저고리의 형태적 특징

백담사 저고리는 당코깃의 화장저고리로 길과 소매는 黃色花樑紋緞¹⁾이고, 깃과 결마기는 紫色雲龍紋緞, 끝동은 紫色花樑紋緞, 안감은 素色生絹로 구성되어 있다. 저고리의 색상이 선명하고 직물상태가 양호하여서 아름다운 원형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1). 소매는 직선 배래이고 깃, 끝동, 결마기 등에서 안동권씨²⁾, 파평윤씨³⁾, 청연군주⁴⁾ 등의 출토복식에서 볼 수 있는 18세기 저고리의 형태적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파평윤씨의 저고리와 형태에 있어 상당히 유사하며, 18세기 전기의 안동권씨 저고리와 18세기 말엽의 청연군주 저고리의 중간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저고리의 시대에 따른 변화과정을 정확히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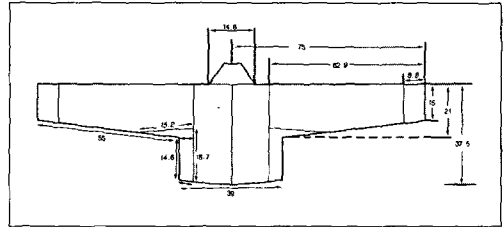
저고리등술기의 안쪽에는 “건명 무술성도시곤명 경자생님시 낭위불평성화락금슬진등종고낙 지조손창성귀자만당만복이 구전복식문흙금년귀즈 접디룰지원지성소구소원축원을○일우오물지성소원” 이라고 부부의 화락과 금슬, 자손창성, 자식의 접지와 복을 바라는 마음을 한글로 쓴 발



〈그림 1〉 황색만자소화문단 삼회장저고리



〈그림 2〉 저고리 도식화 전면



〈그림 3〉 저고리 도식화 후면

원문이 묵서되었다. 또한 발원문에 의하면 남편은 戊戌生으로 1718년생이고, 부인은 庚子生으로 1720년생이므로 발원 당시에 남편은 41세, 부인은 39세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1) 길

저고리의 뒷길이는 37.5cm, 화장은 75cm이며 뒤폭은 39cm, 옆선의 길이는 14.6cm이다. 결마기는 세로 18.7cm, 기로 15.2cm의 크기로 결마기의 위가 소매 쪽으로 다소 뺏어나갔다.

등술은 골선으로 시점을 0.8cm나비로 접어서 흙질로 박았으며 시점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가도록 처리하였다. 안감의 등술은 발원문을 쓰기

1) 화집문단은 조선말기 궁중발기에 많이 나오는 직물명칭으로 穢은 창살을 뜻하므로 화집문은 창살과 같은 장지문 바탕에 꽃무늬가 들어있는 백담사 저고리 문양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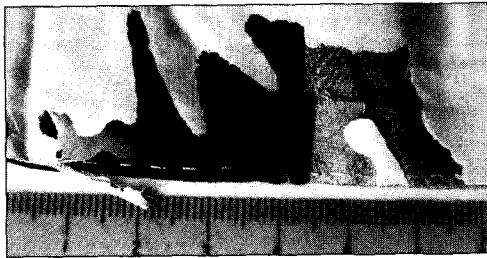
2) 송미경 (2001). 안동권씨 묘의 출토복식에 대한 고찰.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 pp.237~245.

3) 고부자 (2003). 파평윤씨 복식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 제 21호.

4) 복식류 명품도록 (1990). 고려대학교박물관, p.181.

석주선 (1985). 衣.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 박물관, pp.142~143.

위해 트여 있으며 시점의 방향은 걸감의 방향과 같다. 진동선의 시점은 좌우 가름술로 처리하였다. 안감은 살에 직접 닿는 곳이라 걸감과 달리 상당히 삭았는데, 특히 깃의 고대 부분과 걸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이 많이 삭아 있었다. 도련은 <그림 4>와 같이 완성선보다 0.2cm안쪽으로 1cm안에 2~3땀씩 넣은 성근 흡질로 안감과 걸감을 붙여주었으며 시점분량은 1cm로 하였다.



<그림 4> 걸감과 안감의 연결상태

2) 소매

소매는 직선소매이며 걸마기가 겨드랑이 아래 뿐만이 아니라 소매 쪽으로 뻗어 나갔다.

소매 배래부분의 안팎시점은 요즈음처럼 네 겹 바느질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안팎이 분리되어 있다. 안감과 걸감을 별도로 완성시킨 후 안팎의 걸끼리 맞닿도록 겹쳐 끼워서 수구와 쇠, 도련 등을 흡질하여 고대 쪽으로 뒤집었다. 즉 '안팎일체형'이 아닌 '안팎분리형'⁵⁾이라고 하겠다. 1879년에 사망한 이연응의 출토복식 중 '수레지의'용 여자 저고리도 안팎분리형이며, 그밖에 개화기의 몇몇 저고리들도 안팎분리형이므로 이러한 바느질법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이어졌으며, 현재의 4겹 바느질 방법은 20세기 들어서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배래시점은 1.3cm로 모두 뒤쪽으로 정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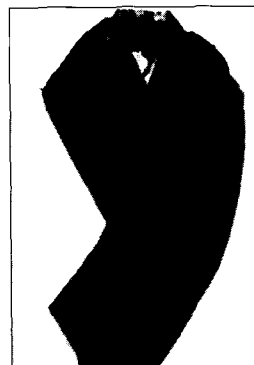
수구의 길이는 15cm이고 수구 끝에는 紫色 끝동이 달려있다. 끝동 나비는 8.8cm이며, 소매와 끝동의 시점은 가름술이다. 수구의 안쪽에는 안감 위에 별도로 끝동과 비슷한 크기인 8.7cm나

비의 안감을 덧대어 공그르기로 마감하였다. 이는 일종의 거들지의 역할을 하며 소매의 오염방지를 위해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3) 깃과 동정

깃머리의 형태는 당코깃으로 깃머리의 윗부분이 둥글게 패였고 아랫부분은 직각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안깃은 목판깃이다. 깃 길이는 총 71.3cm로 걸깃은 27.5cm, 고대는 14.8cm, 안깃은 29cm이다. 깃나비는 전체적으로 8.2cm인데, 고대부분만은 7cm로 좁아져 있다.

걸깃을 달 때 깃을 많이 굴려 주었고, 굴려 다는 반대편 외곽선을 오그려주어 깃 놓임을 편하게 해주었다<그림 5>. 깃의 외곽선에는 <그림 6>과 같이 0.4cm폭으로 솜을 도톰하게 넣었으며 깃머리에서부터 12.5cm 떨어진 지점까지와 안깃 끝에서부터 10.5cm 떨어진 지점까지는 1cm에 6땀이 들어가는 고운 흡질로 상침처리 되었으며, 동정이 달리는 위치에는 1cm에 1.5땀이 들어가는 성근 흡질로 상침처리 되었다.



<그림5> 깃의 형태



<그림6>깃의 외곽선

는 성근 흡질로 상침처리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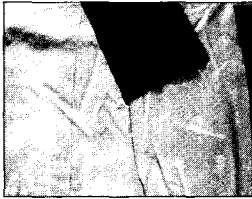
동정은 달려있지 않으나 깃이 외곽선에서부터 3.2cm 떨어진 곳에 1.4cm간격으로 동정의 바느질 흔적이 남아있다. 이 흔적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동정의 나비는 3.2cm이고 동정 길이는 53cm이며, 걸깃 시작 지점에서 7.2cm 떨어진 곳에서부터 달기 시작하여 안깃 끝에서 10cm 떨어진 곳까지 달았음을 알 수 있다.

5) 이은주, 이연응 묘의 출토복식에 대한 고찰,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경기도 박물관, pp.271~272.

4) 섶

겉섶의 폭은 위쪽 11.3cm, 아래쪽 13.1cm이며 겉섶선은 22cm이다. 안섶의 폭은 위쪽 4.8cm, 아래쪽이 6.8cm이며 안섶선은 19cm으로 <그림 7, 8>과 같이 겉섶과 안섶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난다. 양쪽 모두 섶코를 만들어 도련선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다.

겉섶은 길과 연결되는 쪽을 식서 방향으로 재단하였으며 안섶은 안섶선(안섶의 외곽선)을 식서 방향으로 재단하여 요즈음 바느질 방법과 같다. 양 섶의 가운데 세로선에는 깃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3cm 간격으로 2땀 상침으로 하여 섶을 붙여주었으며, 2땀의 길이는 각각 0.1cm, 0.5cm로 차이가 있다. 섶의 솔기는 0.5cm 나비로 흠질되어 전체적인 봉제법이 안동권씨의 회장저고리 기법과 같았다⁶⁾. 솔기의 방향은 겉섶의 경우 섶 쪽으로, 안섶의 경우 길 쪽을 향하여 요즈음의 바느질 방법과 같다.



〈그림7〉 안섶



〈그림8〉 겉섶

5) 고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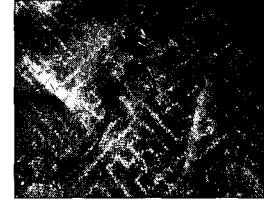
고름은 남아있지 않고 걸고름과 안고름 모두 떼어낸 흔적만 남아있다.

<그림 9>과 같이 저고리의 겉깃 쪽 고름은 깃과 섶 연결부위 바로 위에 2.7cm폭으로 고름을 떼어낸 흔적이 있다. 안깃 쪽에는 저고리 길에 결마기에서부터 3.3cm 떨어진 지점에 <그림 10>와 같이 자주색 실만 남아있다. 이렇게 양쪽 고름의 흔적으로 보아 깃과 같은 자색의 고름이 달려있었다고 생각된다.

안고름도 안깃 끝 부분에서 2cm떨어진 곳에서 흰색 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감의 왼쪽 겨드랑이 바로 밑에도 안고름이 달렸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림 9〉 겉깃의 고름이 달린 흔적의 확대부분



〈그림10〉 저고리 앞길에 고름이 달린 흔적

Ⅲ. 저고리직물의 제직 및 문양 특성

1) 조사방법

직물의 두께는 두께측정기(Thickness gauge)를 사용하여 KS K 0506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직물에 장력이 없도록 프레스푸트(pressure foot)로 일정한 하중(푸트의 직경 $9.25 \pm 0.025\text{mm}$, 압력 3.4psi)을 가한 후 5초가 지난 후 눈금을 읽는다. 사용한 후도계는 Mitutomo(Japan)로서, 직물의 각기 다른 부위를 5군데 이상 측정하여 평균을 내었다.

직물의 색도는 Colormeter JX 777을 사용하여 각 직물의 5군데 이상 측색을 하여 L^* , a^* , b^* 값을 평균하여 표시하였다. 측색계로 측정한 값에서 L^* 은 명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0부터 100까지의 수치로 표시하며, 수치가 커질수록 명도가 높은 밝은색을 의미한다. a^* 는 적색(red)과 녹색(green)의 값으로 +50에서 -50까지의 수치로 표시하며 +50에 가까우면 적색, -50에 가까우면 녹색을 나타낸다. b^* 는 황색(yellow)과 청색(blue)의 값으로 +50에 가까우면 황색, -50에 가까우면 청색을 나타낸다.

직물의 조직분석은 직물의 양면에서 폭의 1/10 이상 떨어진 곳에서 5cm x 5cm의 부위를

6) 송미경, 앞의책, pp.242-243.

선택하여 경사방향을 확인하여 세로로 놓는다. 분해경 아래에 직물을 놓고 각각의 경사를 따라 가면서 의장지에 경사가 위사 위로 위치한 곳은 검게, 위사 아래로 위치한 곳은 희게 그대로 남겨 놓으며 표시해간다. 이 조직도로 반복조직을 확인하여 직물조직을 판단하였다.

직물의 밀도는 분해경을 사용하여 KS K 0511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직물을 평편한 곳에 놓고 장력과 구김이 없는 상태에서 분해경 밑에 놓고 일정한 구간의 경사와 위사의 수를 세었다. 각 직물마다 5군데 이상 측정하여 평균하여 5cmx5cm내의 경사와 위사의 수로 표시하였다. KS 규정과는 달리 inch당의 밀도도 실제로는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inch당 밀도도 함께 표시하였다.

그밖에 직물을 구성한 실의 굵기, 꼬임의 상태 등을 실제현미경을 사용하여 확대 촬영한 후 판단하였다.

2) 직물분석 결과 및 고찰

저고리의 무게는 121.78g 이었으며, 저고리의 걸감으로는 세 종류, 즉 길, 깃과 결마기, 소매끝동을, 안감으로는 한 종류 등 총 네 가지 형태의 직물을 관찰할 수 있었다.

(1) 저고리 걸감

걸감을 이루고 있는 세 종류 직물의 공통적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옷감의 조직은 자카드(jacquard)조직으로 바탕은 경주자, 문양은 위주자로 조합한 다마스크(damask)의 일종이었다. 이러한 직물은 광선에 대한 반사도가 다르므로 바탕과 문양의 광택도에 차이가 나게된다. 걸감의 직물들도 바탕은 경사가 위사 위로 최대 4매까지 부상(float)된 5매 경주자로 광택이 많고 매끄러운 표면을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문양 부분은 바탕과는 반대로 5매 위주자로서 위사가 최대 4매까지 경사 위로

부상이 되면서 광택도가 떨어지면서 훨씬 더 부드러운 문양의 효과를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경사와 위사의 형태는 꼬임이 없는 무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질의 견 필라멘트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보풀이나 표면의 불규칙함은 관찰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연구된 동일 시대의 직물들도 양질의 견 필라멘트를 사용한 경우는 거의 꼬임을 주지 않거나 약간의 꼬임만을 준 상태로 제직에 사용하고 있어 이들과 거의 유사한 제직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⁷⁾.

좀 더 자세히 경사와 위사의 상태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형태가 완벽한 상태로 보존된 문화재의 보호 차원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으므로 경사와 위사의 굵기도 길이와 무게에 따른 정확한 표시법으로 산출하기는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현미경 관찰에 의하여 평면상으로 나타난 사진상에서의 실의 폭을 측정하여 굵기로 대신 추정할 수 밖에는 없었으며, 무연상태의 실의 굵기 또한 필라멘트의 집합에 따라 불균일 하였으므로 여러 부분을 측정하여 평균하여 산출하였다.

경사와 위사의 형태가 꼬임이 없이 거의 평면적으로 필라멘트를 모아놓은 형태로 되어있어 실의 단면의 형태는 일반적 형태인 원형이라기 보다는 매우 납작한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으리라 유추되었다. 경사와 위사의 정확한 변수 측정은 불가능하였으나 평면적인 측정수치와 직물의 두께를 측정한 값으로 실의 상태를 유추할 수 밖에 없었다.

걸감의 직물들은 일반적인 직물과 마찬가지로 경사가 위사 보다 더 가늘며, 경사밀도가 위사밀도보다 큰 불균형 직물(unbalanced fabric)로서 제직과정에서 강도를 유지하고, 사용하는 동안 내구성을 지니도록 제직되었다 하겠다.

직물의 태는 무연사를 사용하였고 경사나 위사의 부상이 많아 구김이 많이 생기지 않으며 촉감이 매우 부드럽고 유연하였으나, 안감의 지지에 의해 저고리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 경사

7) 조효숙 (2001). 인평대군파 의원군 일가 출토직물. 전주이씨묘출토복식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 pp.130-185.

나 위사의 부상이 많은 직물은 일반적으로 강도가 약하며 실의 빠져나움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이 저고리의 겉감의 경우는 <표 2>의 밀도가 보여주듯이 조직이 매우 치밀하여 이웃한 실끼리 매우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으므로 직물 표면에서 보풀이나 실의 빠짐 현상을 거의 관찰할 수 없었다. 또한 매끄럽고 평활한 표면은 양질의 전 필라멘트사를 사용함으로써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겉감의 저고리 각 부분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길

길을 이루고 있는 직물은 황색화접문단(黃色花接紋段)이다.

길에 사용된 직물은 한 폭으로서는 불가능하므로 전 폭이 사용된 곳에서 직물의 폭을 측정할 수 있었다. 직물의 폭은 440mm였으며, 직물의 두께는 0.11mm로 측정되었다.

색상은 저자색으로 측색계로 측정한 옷감표면의 L*/a*/b* 값은 64.69/+5.45/+49.95 였다. 길의 뒷면의 색상은 저고리 안감의 손상된 부분을 통하여 측정 가능하였으며 그 L*/a*/b* 값은 68.00/+3.90/+51.63 였다. 길의 표면과 이면의 색차를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Delta E = [(\Delta L^*)^2 + (\Delta A^*)^2 + (\Delta B^*)^2]^{1/2}$$

ΔE : 색차

ΔL* : L_{sample} - L_{standard}

ΔA* : A_{sample} - A_{standard}

ΔB* : B_{sample} - B_{standard}

여기서 계산된 수치는 <표 1>의 색차의 감각적 표현⁸⁾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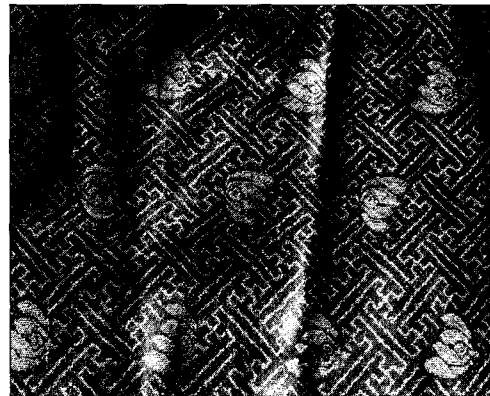
계산된 색차는 4.02로 감지할 정도(Appreciable)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고리가 불상 안에 복장되기 이전에는 착용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의한 표리의 색상차이로 보이며, 1991년에 발굴 후에는 불상 안에서는 외부환경과 차단되어 있었으나 10여년간 외기와 접

<표 1> 색차의 감각적 표현

National Bureau of Standard Unit	The sensible expressions of color difference (색차의 감각적 표현)
0-0.5	Trace (미약하다)
0.5-1.5	Slight (근소하다)
1.5-3.0	Noticeable (눈에 띈다)
3.0-6.0	Appreciable (감지할 정도)
6.0-12.0	Much (많다)
12.0이상	Very much (매우 많다)

하면서 표리의 색상에 변화가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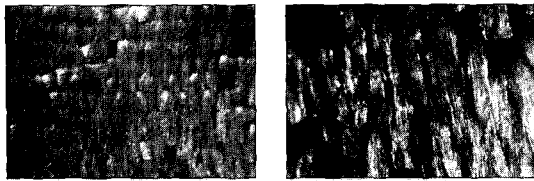
문양은 화접문단(花蝶紋段)으로 <그림 11>과 같이 바탕에 접문(창살무늬)이 사선방향으로 깔려있고 그 위에 측면형의 작은 꽃(小花)을 격자형으로 배열하였다. 꽃은 4개의 꽃잎이 측면형으로 시문되었는데 형태적 특성을 찾기 어렵다. 꽃들은 꽃잎이 한 줄은 왼쪽을 향하고, 다음 줄은 오른쪽을 향하여 피어있는 상태로 배열되었다.



<그림11> 저고리 길 : 黃色花蝶紋段

<그림 12-13>은 저고리 길의 바탕부분과 문양부분을 확대한 사진으로 바탕은 경주자, 문양은 위주자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제작의 한 반복단위는 6.5cm×3.5cm(경사방향×위사방향)이며, 꽃 문양의 크기는 1.5cm x 1.5cm로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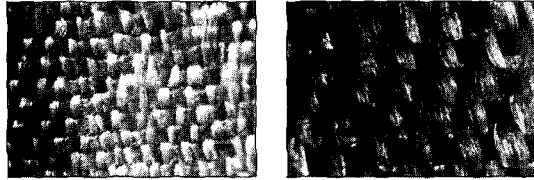
8) 이미식 (1998). 김홍조 출토직물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 분석. 판결사 김홍조선생 합장묘 발굴조사보고서. 영주시, p.170.



< a:저배율 확대 >

< b: 고배율 확대 >

<그림 12>저고리 길의 바탕조직 확대사진



< a:저배율 확대 >

< b: 고배율 확대 >

<그림 13>저고리 길의 문양조직 확대사진

되었다.

실의 굵기를 측정된 결과 경사는 0.20mm, 위사는 0.28mm로 측정되어 위사가 경사보다 1.4배 정도 굵게 나타났다. 5cm×5cm 직물 내의 경사와 위사의 밀도는 각각 462, 126개로서 경사의 밀도가 위사의 밀도보다 3.4배 정도 더 조밀하게 직조된 불균형 직물(unbalanced fabric)이며, 기공이 거의 보이지 않는 조밀직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② 깃과 결마기

깃과 결마기를 이루고 있는 직물은 자적색의 운용문단으로, 사용된 직물은 그 부위가 워낙 협소하여 직물 쪽 전체에 대한 관찰은 불가능하였다. 직물의 경사방향을 보통 깃의 사선 방향으로 놓고 재단하므로 이로써 경사와 위사의 방향을 판단하였으며, 직물의 두께는 0.21mm였다.

색상은 자적색을 띠고 있었으며, 측색계로 측정된 $L^*/a^*/b^*$ 값은 21.39/+14.26/-2.24였다.

분양도 그 부위가 워낙 좁아 한 단위도 완벽하게 관찰되지는 않았으나, <그림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운용문으로 구름분양과 용분양이 가로 방향으로 교대로 배치되어 있으리라 예측되며, 구름과 용분양 사이에는 보주가 시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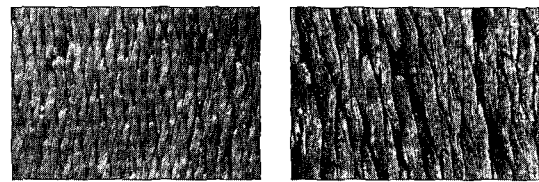
<그림 15-16>은 저고리 깃과 결마기의 바탕조직과 문양조직의 확대사진으로 경사와 위사의 형



<그림 14> 저고리 깃과 결마기 : 雲龍紋織

태는 길과 마찬가지로 꼬임이 없는 무연사이며 양질의 견 필라멘트사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미경 사진에 의한 평면 상의 실의 굵기를 측정된 결과 경사는 0.18mm, 위사는 0.28mm로 위사가 경사의 1.6배 정도 굵게 나타나고 있다. 경사밀도는 424, 위사밀도는 128로 길과 마찬가지로 경사밀도가 위사밀도의 3.3배인 불균형 직물이었으며, 기공이 보이지 않는 조밀한 조직으로 짜여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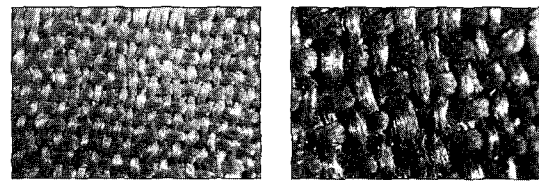
길의 직물과 비교했을 때, 경사밀도와 위사밀도가 비슷하고 현미경 상에서 평면적으로 측정된 실의 굵기도 거의 유사하나, 직물의 두께는 2배 정도 더 두꺼운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로써 실제 사용된 실은 무게와 길이로 정확히 측정된다면 더 굵은 실이거나, 또는 같은 종류의 실을 사용했다면 적용된



< a:저배율 확대 >

< b: 고배율 확대 >

<그림 15>저고리 깃과 결마기의 바탕조직 확대사진



< a:저배율 확대 >

< b: 고배율 확대 >

<그림 16>저고리 깃과 결마기의 문양조직 확대사진

염료가 다르므로 실이 흡착한 염액량의 차이로 인해 더욱 팽윤된 상태일 것을 예측할 수 있겠다.

③ 끝동

끝동을 이루고 있는 직물은 <그림 17>의 화점 문단으로서 깃이나 결마기와 마찬가지로 그 부위가 워낙 협소하여 직물 폭을 알 수 없었으며, 직물의 두께는 0.20mm로 측정되었다. 색상도 깃과 결마기와 유사한 자적색을 띠고 있으나, 측색계로 측정된 $L^*/a^*/b^*$ 값은 23.26/+16.42/2.03으로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자적색의 색차를 계산한 결과는 5.1로서 감지할 정도(Appreciable)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직물은 같은 염료를 사용했으나 시일이 지남에 따라 위치에 따른 변색도에 차이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염료를 사용했는지의 판단은 불가능하였다.

문양은 <그림 17>에 보이는 바와 같이 화점문단으로, 바탕의 점문 좌우 사선무늬는 길의 바탕무늬와 유사하였으며, 꽃 문양은 두가지로서 해바라기꽃과 길의 꽃문양과 유사한 형태의 꽃이 가로 방향으로 한 줄씩 번갈아가며 배치되어 있었다. 이 또한 바로 이웃한 가로 줄과는 엇갈려가며 배치되는 격자형 배열이다.



<그림 17>저고리 끝동 : 花接紋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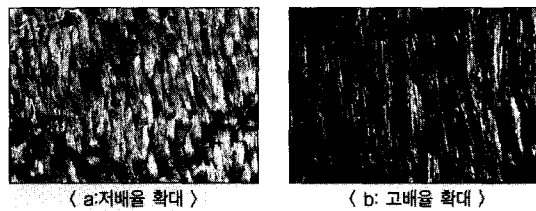
조직은 자카드조직으로 한 반복단위의 크기는 11.5cmx5.5cm(경사방향×위사방향)이며, 해바라기꽃 문양의 크기는 5cmx5cm, 또 다른 꽃 문양의 크기는 4.5cmx3.5cm 이었다.

<그림 18-19>는 저고리 끝동의 바탕조직과 문양조직의 확대사진으로 경사와 위사는 꼬임이 없는 무연사이며, 현미경 상에서 평면적으로 측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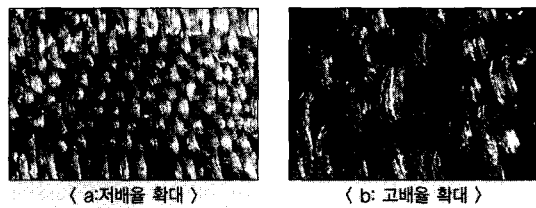
실의 굵기는 경사 0.21mm, 위사 0.29mm 로 위사가 경사보다 1.4배 정도 더 굵게 나타나고 있다.

경사밀도는 406, 위사밀도는 118로 경사밀도가 3.4배 더 조밀한 불균형직물이었으며, 기공이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치밀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끝동을 이루고 있는 직물은 경사와 위사의 굵기 및 밀도가 깃과 결마기를 이루고 있는 직물과 거의 유사하였으며, 직물의 두께 또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육안으로는 문양의 차이만 나타나는 정도였다.



<그림 18>저고리 끝동의 바탕조직 확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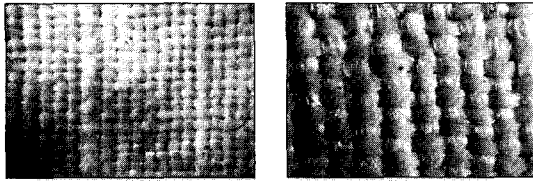
<그림 19>저고리 끝동의 문양조직 확대사진

(2) 저고리 안감

안감직물은 생초로서 폭을 이어 비교적 넓은 부위에 사용되었으므로 직물 폭의 측정이 가능하였다. 조직은 평직으로 문양이 없는 무문직이며, 직물의 폭은 365mm로 길에 사용된 직물보다 폭이 좁았으며, 두께는 0.13mm로 측정되었다.

색상은 백색으로 측색계로 측정된 $L^*/a^*/b^*$ 값은 80.27/+2.49/+14.13이었다.

경사와 위사의 형태는 걸감과 마찬가지로 <그림 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꼬임이 없는 무연사로서 견 필라멘트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걸감에서와 마찬가지로 평면상에 나타난 현미경 사진으로 측정된 경사의 굵기는 0.23mm,



< a: 저배율 확대 > < b: 고배율 확대 >

<그림 20>저고리 안감 : 무문직 확대사진

위사의 굵기는 0.20mm로 경사가 더 굵은 실을 사용하였다.

경사의 밀도는 152이고, 위사의 밀도는 228로 불균형직물로 나타났다. 단위면적 내의 경사와 위사의 수는 380개로 겹감 보다는 밀도가 치밀하지 않았다.

겹감에 사용된 직물들을 포함한 일반적인 직물은 경사의 굵기가 위사보다 가늘며, 경사밀도가 위사밀도 보다 크게 제직되는 것이 보통이나, 이 안감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위사의 굵기가 경사의 1.2배이며, 위사밀도가 경사밀도보다 1.5 배 더 크게 제직된 것이 차이점이라 하겠다. 제직상태는 교차점이 많은 평직으로 직조되어 경위사의 직각적인 배치와 평행배열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무연사를 사용하거나, 위사밀도가 경사밀도 보다 높은 경우 직물의 태는 매우 유연하며 부드러운 촉감을 지니게 되나, 이 안감의 경우는 교차점이 많은 평직으로 이루어져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보다는 뻣뻣하고 강직한 느낌이 더 많았다. 또한 안감으로서 겹감의 형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 약간의 풀기 또한 촉감으로 감지되는 것이 이러한 강직감을 나타내는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표 2>는 저고리 직물의 전체적인 제직과 문양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IV. 결론

1748년에 조성된 보물 제1182호 백담사 목조 아미타불의 복장유물인 저고리는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색상의 아름다움과 선명함을 그대

<표 2> 저고리 직물의 제직 및 문양 특성

저고리	겹감			안감	
	길	깃과 결마기	끝동		
직물명	황색화점문단	운용문단	화점문단	생초	
두께(mm)	0.11	0.21	0.20	0.13	
폭(mm)	440	-	-	365	
색상	색명	황색	자적색	자적색	백색
	L*	64.69	21.39	23.26	80.27
	a*	+5.45	+14.36	+16.42	+2.49
	b*	+49.95	-2.24	+2.03	+14.13
문양	종류	화점문	운용문	화점문	없음
	전개법	혼합형	신재형	혼합형	-
	반복단위(mm)	65×35	-	115×55	-
	꽃 크기(mm)	15×15	-	화문:1.50×50 화문:2.45×35	-
조직	자카드 조직(damask)				평직
	비방	5매 경주자			
	문양	5매 위주자			
실의 상태	경사	무연	무연	무연	무연
	위사	무연	무연	무연	무연
실굵기* (mm)	경사	0.20	0.18	0.21	0.23
	위사	0.28	0.28	0.29	0.20
경위사 굵기비(위사/경사)		1.4	1.6	1.4	0.9
밀도 5cm x 5cm (inch)	경사(개)	415(211)	417(212)	400(203)	150(76)
	위사(개)	124(63)	126(64)	116(59)	224(114)
	경사위사(개)	539(274)	543(276)	516(262)	239(190)
경위사 굵기비(경사/위사)		3.4	3.3	3.4	0.7

* 현미경 사진상에서 평면상의 실의 폭을 측정한 수치임.

로 지니고 있었다.

저고리는 등길이가 37.5cm이며 소매는 직배래이고, 당코깃에 깃, 결마기 그리고 끝동에 이색천을 대준 18세기의 전형적인 회장저고리 형태를 갖추고 있다. 저고리의 형태는 안동권씨, 파평윤씨, 청연군주 등의 출토복식에서 볼 수 있는 18세기 저고리의 형태적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파평윤씨의 저고리와 형태에 있어 상당히 유사하며, 18세기 전기의 안동권씨 저고리와 18세기 말엽의 청연군주 저고리의 중간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저고리의 시대에 따른 변화과정을 정확히 느낄 수 있다.

봉제법은 겹감과 안감을 각각 따로 제작되어 끼워넣은 '안팎분리형'이다. 바느질 방법은 주로 고운 흠질과 성근 흠질이 사용되었고 깃은 많이 굴러서 달아주었으며 깃 외곽선은 솜을 넣어 도

톱하게 하였다. 겹섬과 안섬은 크기차이가 많이 나며 겹고름과 안고름의 흔적만 남아있다. 소매 끝동 안쪽에 덧단을 대주었으며 깃의 모양과 소매덧단과 같은 경우는 동시대인 파평윤씨의 저고리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직물은 단류로는 황색화접문단, 운용문단, 화접문단의 세종류, 평직물로는 생초가 사용되었다. 문단의 경우 바탕조직은 5매 경주자, 문양조직은 5매 위주자로 구성되었으며, inch당 평균 경사밀도는 209, 위사밀도는 62로 나타났다. 평직물인 생초의 경사밀도는 150, 위사밀도는 224로 일반직물과는 달리 위사의 밀도가 더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백담사 저고리직물에 사용된 경사와 위사는 모두 무연사가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동양적인 미의 신비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미 선진 외국에서는 동양의 민속복 및 직물의 문양을 응용한 의류용품들이 우리나라에 고가로 역수출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이 복식의 역사적 연구뿐만 아니고, 현대 복식에 활용되어 의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부자 (2003). 파평윤씨 복식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 제 21호.
- 복식류 명품도록 (1990). 고려대학교박물관, p.181.
- 석주선 (1985). 衣.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 박물관, pp.142~143.
- 송미경. 앞의책, pp.242-243.
- 송미경 (2001). 안동권씨 묘의 출토복식에 대한 고찰.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 pp.237~245.
- 이미식 (1998). 김흥조 출토직물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 분석. 판결사 김흥조선생 합장묘 발굴조사보고서. 영주시, p.170.

이은주. 이연응 묘의 출토복식에 대한 고찰.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 pp.271~272.

조효숙(2001). 인평대군파 의원군 일가 출토직물. 전주이씨묘출토복식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 pp130~185.